

한나라, 3월 임시국회 고민되네

한나라당이 3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를 열 경우 '방탄국회'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산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 등 2월 국회에서 무산된 일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3월 국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행법 규정상 국회는 짝수달에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지만, 짝수달이 아닌 달에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등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임시국회 소집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한 헌법이 임시국회의 회기에 대

홍준표 원내대표 "3월 국회 없다" 불구 은행법 등 쟁점법안 산적 소집 '저울질'

해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부분도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법안만을 다룰 경우 1~3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언제나 임시회를 소집할 수는 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원내대표는 5일 "4월 국회는 추가경정 예산 국회가 될 것이므로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하고 4월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 당직자도 "원칙적으로는 3월 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굳이 3월 국회를 소집한다면 이를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고 "아직 3월 국회 소집을 위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3월 국회를 열 경우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은행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쟁점법안과 지난 3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14개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3월 국회를 소집하기에 결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월 국회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이어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여야는 3월 국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은 이 합의를 깨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

韓-濠 정상 "FTA협상 5월 공식 개시"

'안보협력 공동성명' 채택

한국과 호주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공식 개시하고, 기존의 경제·통상 분야 뿐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위한 9개항의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호주를 국빈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캔버라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양 정상은 안보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양자간 협정 체결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에 대한 협력 모색을 포함해 양국 방위산업간 협력 대폭 증대 ▲마약유통, 돈세탁, 무기 밀거래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긴밀한 협력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대테러 문제와 국제핵테러방지구상(GICNT) 진전을 위한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 정상은 한·호주 FTA 체결



호주를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오후 (한국시간) 호주 캔버라 의회에서 케빈 러드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을 위한 첫 회담을 5월중 개최하기로 하는 등 FTA 체결을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러드 총리는 우리의 K9 자주포의 장점을 높이 평가하며 구매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중·일과 아세안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호주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다음달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부실자산 관리를 위한 국제체제 구축에 공조하기로 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 확대, 호주가 주도하는 '국제 탄소수집저장 구상(GCCSI)'을 통한 전세계적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도 합의했다. /연합뉴스



박광태 광주시장 '뛰면서 생각했다'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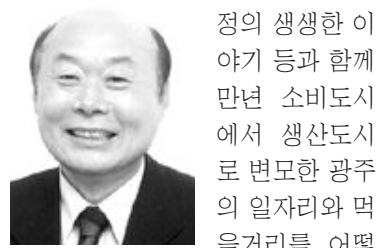
경제 발전 위해 뭘 뒷얘기 담아

3선 국회의원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변신한 박광태 광주시장이 시장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 시절부터 헌신했던 뒷얘기들을 묶어 책으로 발간했다.

'뛰면서 생각했다'는 제목의 이 책은 '소비도시를 생산도시'로 바꾼 '1등광주 프로젝트'라는 부제를 달고 민선 광주호의 CEO(최고경영자)로서의 도시경영 철학과 비전, 자신의 삶이 담겨 있는 회고록이자 광주시정에 대한 진솔한 현장기록이다.

박 시장은 이 책을 통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부터 산업 불모지였던 광주의 척박한 토양에 광산업 등 미래산업을 이식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여정을 가감없이 솔화하고 있다.

또 광주 경제의 '투톱'인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에 얽힌 이야기, 미래로 가는 견인차인 광(光)산업 추진과



정의 생생한 이야기 등과 함께 만난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변모한 광주의 일차리와 맥을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세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는 "광주에서 광산업이 주력산업이 되고 자신이 광주호의 수장이 된 것은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말한 뒤 '광주에는 광주의 광과 광산업의 광, 박광태의 광 등 3광이 있다'는 유머스런 필치도 덧붙였다.

4부로 나뉜 이 책의 제1부 '미리 그린 광주의 산업지도'는 광산업 태동과정의 후일담, 삼성전자 광주공장 유치과정, 부도난 한남투신 10만 고객의 눈물을 닦아준 묘책 등 일화가

담겨 있다. 제2부 '경제혁명을 이끌다'는 시장 취임 직후부터 광주의 세일즈맨으로서 국비확보와 투자유치를 위해 발벗고 댄 이야기 등을 담았다. 제3부 '1등 광주, 1등 시민'은 '잘사는 광주' 만들기 본격적으로 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빛고을의 현황에 대한 기록들이 수록돼 있다. 제4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광주'에는 '꿈이 있는 빛고을 광주'를 소망하며 '다시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는 각오와 '잘사는 광주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다짐이 들어있다. 최근 경제난을 감안해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기로 한 박 시장은 5일 "3선 국회의원과 광주시장으로서만 들어준 광주와 광주시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살기 좋은 '1등 광주'를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주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강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北, 이란·시리아에 대포동 기술 제공"

북한은 지금까지 중동지역 국가들에 스카드 미사일 1천기 이상을 수출, 1년에 15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미국의 민간연구소가 주장했다.

북한은 또 미사일 무역을 확대해 최근에는 이란·시리아 등 많은 '고객국가'들에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대포동 2호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밝혔다.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클레어몬트 연구소'는 지난 1월말 발간한 '2009년 미사일 방어, 우주관계 및 21세기'라는 제목의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활동과 관련, 이같이 언급했다.

보고서는 작년 9월 이스라엘군이 공습한 시리아의 알카바르 원자로 개발을 위해 북한이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상당정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프랑스 '숙제대행 사이트' 오픈 논란

프랑스에서 돈을 받고 중·고교생들의 숙제를 대행해주는 사이트(사진)가 공식 오픈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등에 따르면 숙제대행 사이트 '페메드부아닷컴'이 5일 문을 열었다. "숙제가 잘 안 돼? 우리가 있어"라는 슬로건을 건 이 사이트는 중 1학년에서 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숙제의 종류와 요금은 다양하다. 간단한 수학 문제에서 작문 상 세 계획서, 10장짜리 학기말 소논

문까지 5유로(약 1만원)에서 80유로(약 16만원)면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숙제를 보내면, 24~72시간 내에 답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요금 지불방법은 파리 시내 상점에서 사용되는 선불 카드나 휴대전화 결제 등이 가능하다.

사이트 운영진은 "프랑스 최고 교육기관인 그랑 제콜 등에 재학하는 대학생 및 현직 교사 50여명이 숙제를 해결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 물론 아이들을 사용한 의명으로도. 이들은 시간당 15~45유로(약 3만~9만원)를 지급받고, 학교에 숙제를 제출한 뒤 점수를 받은 고액(중·고교생)들로부터 평가도 받는다. /파리=정성필특파원 camus@

합력을 많이 시킨 학원만이 공무원합격의 Know-How를 안다!!

수석합격 / **중급공무원 이론반** / **9급문제풀이 찍기반** / **종합반/단과반** / **개강 4월1일**

www.hanbit.com

한빛 고시학원

대구경북 052-671-1199

아이엘리시아

실백민들 수출의 법, 수석기법

무료체험단모집

출발일: 2009. 3. 14 - 2009. 3. 21

출발지: 광주광역시

참가비: 200,000원

문의: 052-671-1199

아이엘리시아

실용권 판매

052)671-1199